

### 2013 문화계 결산 ① 미술



올해 지역 미술계는 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광주13, 광주 폴리등 볼거리를 제공한 반면, 국제 행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사진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3년 광주·전남 문화계는 숨겨진 한해를 보냈다. '문화 융성의 시대'를 맞아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트광주2013 등 국제적인 미술 행사와 함께 크고 작은 전시회와 공연이 시민들을 찾아갔다. 공연계에서는 전국무용제에서 광주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무향 광주'를 알렸다. 하지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논란, 광주문화재단 부적절한 직원채용, 빛고를 문화관 부지 선정 잡음 등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다. 지역 문화계의 지난 1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짚어본다.

## 디자인비엔날레·아트광주... 국제적 미술행사 눈길

올해 지역 미술계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트광주13 등 굵직한 미술 행사와 전시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광주 폴리등이 새롭게 설치돼 도심 곳곳을 수놓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 행사들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정체성 논란 디자인비엔날레는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59일간 2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미학과 답론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이전 행사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실용적 가치와 산업화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두면서 친숙한 문화행사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개막과 함께 '비엔날레'라는 행사의 정체성이 논란이 됐다.

일부 미술평론가들은 "비엔날레가 아니었다. 디자인페어였다. 이슈도, 임팩트도 없었다"라고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디자인 본연의 미적 가치 부각을 바탕으로 실용적 가치를 선보여야하는 비엔날레 정신을 담지 못했다는 의미다. 5회째나 행사를 치른 것과는 상반되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디자인비엔날레, '친숙함' 긍정평가 속 정체성 결여 지적

강운·이이남 등 11명 독일서 특별전... 광주미술 세계로

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다양한 '산업화 프로젝트'와 '공공 디자인'은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 등이 실제 산업과 생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광주 폴리II' 8개 작품이 '인권과 공공 공간'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설치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템플하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폴리II는 폴리I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장 가능성 내비친 아트광주13=지난 9월 열린 아트광주13(광주국제아트페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작품을 판매하고, 많은 관람객이 찾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 판매액은 12억5000만원, 관람객은 2만7000명이었다. 한국미술이 행사를 주관,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갤러리(102곳)가 참여했다.

무엇보다도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조선훈 미대 출신인 서정민씨,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정씨, 신수정 제회갤러리 관장 등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후원 등이 줄어들면서 미국 갤러리 등 국제적인 갤러리를 유치하는 데 실패한 것과 마케팅 부족으로 컬렉터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지역 갤러리들은 미술경기 침체로 작품이 팔리지 않아 힘든 한해를 보냈다.

◇김환기 회백 전시와 독일 찾은 광주 작가=김환기 회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8~9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김환기, 백년되어 고향에 돌아오다'전은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전시였다.

광주지역 작가들이 현대미술의 본고장인 독일 무대에 서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으로 강운, 김상연, 김진화, 김해성, 서윤경, 신효운, 이이남, 임남진, 정운학, 최미연, 최재영씨 등 모두 11명의 작

가가 독일 뮌헨 White Box에서 한국현대 미술특별전을 열어 광주 미술을 알렸다.

지역 작가들의 해외 활동도 두드러졌다. 박소빈씨가 스페인 '가바론 문화재단'의 초청으로 뉴욕 가바론 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는 데 이어 내년 바르셀로나 가바론 미술관과 톨시아 가바론 미술관 등에서 잇따라 전시를 갖는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도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미술관 코코트 코트야드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박근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을 선보였다. 또 뉴욕 UN본부 건물에 작품을 기증·설치했으며, 홍콩 아트 페어 등에서 올 한해 좋은 성과를 냈다.

사진작가 이정록씨의 작품 'Tree of Life'가 미국 아트넷 옥션을 통해 록 밴드 '이글스'의 보컬 조 윌시에게 판매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상연씨도 독일 베를린 마이스너스트레에서 초대개인전을 가졌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아크, 제회갤러리, 수하갤러리, 문화공간 신시와, 515갤러리 등 광주지역에 많은 문화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고, 문화 향기를 퍼트린 점은 고무적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행복연가

24일부터 롯데갤러리



안나희 작 '별이 빛나는 밤'

연말연시 가족간 사랑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열린다.

롯데갤러리는 연말기획 '행복연가'전을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개최한다.

전시 관람 포인트는 젊은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현대의 모습들. 참여 작가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후반, 30대 중반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시선을 개성있는 색채로 옮겼다.

이들은 개인소, 세대 불균형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조명했다.

박다혜 작가는 흑백톤으로 사회의 모습

과 고립, 분열, 소외 등을 드러냈고, 박성완 작가는 작품 '공공장 그림일기' 연작에서 노동자들과 그 곁을 지나는 도시민들의 표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조흥 작가는 동그라미,세모,네모 등으로 인간의 특징을 압축했고, 인촌교씨는 작품 '반춘택'에서 도심변두리 시골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의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캔버스에 담았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형진·박다혜·박세희·박성완·서영기·안나희·이인성·이조흥·인촌교씨 등 9명이다. 문의 062-221-18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19일 오후 본사 14층 편집국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은 안도현 시인, 김성범 동화작가, 전경린 작가좌로부터였다. 이번 신춘문예 공모 결과 시, 소설, 동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2023편이 응모, 역대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상 최대 응모 기록을 세웠다. 한편 당선작은 2014년 1월1일자 신문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월 중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유·스퀘어 디카사진 공모전' 내년 2월까지 수상작품 전시

유·스퀘어문화관은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층 테라스 야외갤러리에서 '제2회 유·스퀘어와 함께하는 디카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26점을 전시한다.

지난 10월 '유·스퀘어와 함께한 추억과 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박이씨의 '유·스퀘어의 저녁'과 남철환씨의 '유·스퀘어 꼬마 모뎀'이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사랑이 싹트는 공간'을 출품한 박재영씨와 '그림일기 그림일기 전'을

낸 정선옥씨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 6점, 입선 12점 등 모두 26점이 입선 작품으로 뽑혔다. 친구, 연인, 가족의 행복과 추억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유·스퀘어문화관 관계자는 "그간 유·스퀘어에서 펼쳐진 전시나 공연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풍경까지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야외갤러리를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알차게 꾸며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0-843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중얼기**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